

1.공무원 시험 기조 변화 이후 출제된 25, 26년도 출제 경향 분석

2026년도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국어 문제(제공해주신 복기 자료 기준)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의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 2026년도 국가직 시험, 그리고 작년도(2025년도) 지방직 시험과 비교 및 출제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1. 인사혁신처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와의 비교 분석

인사혁신처가 예고했던 '현장 직무 중심' 및 '암기 지양·사고력 측정'의 기조가 이번 지방직 시험에도 완벽히 정착되었습니다.

- **직무 연계형 문항의 유지:** 예시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공문서 수정(<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을 적용한 1번 문제)이나 보고서 및 글쓰기 개요 작성(4번 문제) 등 업무 상황을 가정한 실무형 문항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 **추론 및 논리력 강화:** 단순 지식 판별이 아닌 지문 내용에 기반한 사실적·추론적 이해(5번, 6번, 7번 문제)와 고등학교 명제 영역 및 기초 논리학을 기반으로 한 연역 논리 추론(11번 문제) 형식이 예시문제의 구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 2026년도 국가직 9급 시험과의 비교 분석

올해 앞서 치러진 2026년 국가직 9급 국어 시험은 이른바 ‘논리비판’과 ‘강화·약화’ 문항의 난도가 매우 높아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대단히 높았던 이른바 ‘불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한 이번 지방직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출제 프레임 유지:** 공문서 고쳐쓰기(1번), 문단 배열(2번), 개요 수정(4번), 연역 논리(11번), 1지문 2문항 세트형(7~8번, 9~10번, 12~13번) 구성 등 전체적인 문항 레이아웃과 출제 카테고리에는 올해 국가직과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 **체감 난도의 미묘한 차이:** 올해 국가직 국어가 다소 복잡하고 꼬아낸 명제 논리와 긴 지문의 강화·약화로 수험생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았다면, 이번 지방직은 개념 간의 관계성(3번 기표와 기의, 5번 물질의 부피 변화 문맥 수정)을 지문 안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배치되어 국가직에 비해서는 논리 파트의 꼬임이 덜하고 비교적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3. 작년도(2025년도) 지방직 시험과의 차이점

출제기조 개편이 처음으로 전면 도입되었던 작년(2025년) 지방직 시험과 비교했을 때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 **출제 유형의 안정화와 정형화:** 작년 시험이 개편 첫해로서 다소 실험적인 성격(독해 비중의 급격한 확대 및 신유형 배치에 따른 시간 배분 혼란)을 띠었다면, 올해 2026년 지방직은 철저하게 '1지문 2문항 독해 세트'를 정형화하여 출제했습니다. 인문, 과학, 예술 등 다방면의 비문학 제재가 밀도 있게 짜여 안정감을 줍니다.
- **문학 지문의 독해화 뚜렷화:** 과거의 문학 시험(작년 포함)이 간혹 지식형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작품 자체의 정형적 해석에 치우쳤다면, 올해는 시(14번 광야 논쟁 등)나 고전 서사(7~8번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마저도 철저하게 외적 지식 없이 "지문 속

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비문학 독해 형식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었습니다.

- **지식형 어휘·문법의 완전한 소멸:** 2025년도에는 과도기적으로 다의어 비교 등 일부 어휘·어법 지식이 개입했으나, 이번 시험은 한자 암기나 맞춤법 조항 단순 암기 문제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문법 요소마저도 한글 맞춤법 규정(6번 성과 이름 띄어쓰기)을 지문으로 깔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에 적용하는 '독해 중심 적용력 시험'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2026년 지방직 국어는 인사처 예시문제의 예고대로 '지식형 암기 근절, 직무·독해·논리 중심'의 출제 기조를 완벽하게 정착시켰으며, 올해 국가직의 극악했던 논리 난도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난이도로 조절하되, 작년 지방직에 비해 문항 구조의 정형성과 논리적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세련된 형태의 시험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2027년도 출제 예상 및 수험 대책

앞서 분석한 2026년도 시험의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2027년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국어 과목의 출제 예상 및 경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탈(脫) 암기·독해 중심' 기조의 완전한 고착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출제기조 전환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정착된 뉴노멀(New Normal)입니다.

- **지식형 문제 배제 지속:** 단순 암기가 필요한 한자 훈음, 맞춤법 규정 조항 암기, 문학사 등의 문제는 내년에도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 **지문 활용 능력 극대화:** 문법과 어휘조차 지문(텍스트) 속에서 원칙을 찾아내어 사례에 적용하는 '독해형 문항'으로만 출제될 것입니다.

2. '1지문 2문항' 세트형 문항과 융합 지문의 대세화

2026년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세트형(연형) 문항이 시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 **지문의 전문성 및 밀도 강화:** 인문,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제재의 비문학 지문이 공식 적격성 평가(PSAT)나 수능 형태로 출제되며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문학의 비문학화:** 문학 작품(고전 소설, 현대시 등)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서사나 평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추론하는 '비문학적 접근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3. '논리 추론(명제/강화·약화)' 문항의 변별력 유지

올해 국가직에서 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혔고, 지방직에서도 핵심 축을 담당했던 '논리·추론' 영역이 내년에도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킬러 문항'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 명제 논리 및 조건 분석:** 고등학교 수학의 명제나 기초 논리학(대우, 삼단논법)을 활용한 기호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 **가설 강화·약화:** 특정 실험이나 이론에 대해 제시된 보기(선지)가 본문의 주장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판별하는 과학적·통계적 추론 문항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직무 연계형 문항의 정형화

공무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이 계속 출제됩니다.

공문서 수정(<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적용), 보고서 개요 수정, 글쓰기 전략, 대화 분석 등의 유형은 매년 문제 순서(보통 1~4번 배치)와 형식까지 정형화되어 출제될 것이므로 기출 유형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 내년 시험 대비 핵심 전략 요약

양치기 식 암기 중단: 기본서의 두꺼운 문법 조항이나 한자어를 외우는 시간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 **독해력 및 시간 관리 훈련:** 길고 밀도 높은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 특히 한 지문을 읽고 2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속도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 **논리 영역 집중 학습:** PSAT(언어논리) 기출문제 중 기초적인 논리 퀴즈나 강화·약화 문항을 선별하여 논리적 사고 메커니즘을 몸에 익혀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문제 정답 및 해설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윗줄 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명사의 반복된 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나 어미를 사용할 것.대등한 것끼리 연결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올바른 피동 표현을 사용할 것.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말 것.

<공문서>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청

제목: 2026년 ○○시립도서관 신규 사서 교육 안내

- 시립도서관 신규 사서 여러분의 원활한 적응을 기원합니다.
- 부서별 ㉠신규 사서 업무 적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 내용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의 축소 방안이 포함됩니다.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강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이번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청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기 바랍니다.

- ㉠: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불편을 축소하는
-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 ㉣: 제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정답 ②

해설: ㉠의 원문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의 축소 방안'은 대등한 결합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②번처럼 '편의 확대와 불편을 축소하는'으로 바꾸면 '편의(명사) 확대(명사)' vs '불편을(목적어) 축소하는(관용사형)' 형태로 여전히 구조가 대칭을 이루지 못하므로 올바른 수정이 아닙니다. 대등한 명사구 형태로 '편의 확대와 불편 축소 방안' 등으로 고쳐야 원칙에 부합합니다.

2.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정독을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부동자세를 취해야 한다. 근대 사람들은 가정과 학교, 도서관과 같은 근대적 공간에서 책 읽는 자세를 집단적으로 훈련하며 정독에 익숙해져 갔다.
- (나) 책에 사진이나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구두점·띄어쓰기의 도입과 더불어 문자를 보충하는 여러 부호가 삽입되는 등 새로운 편집 형식이 등장한 것이다.
- (다) 근대 시기 책 읽기는 책의 내용을 입으로 외워서 연기하듯이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방식에서, 눈으로 꼼꼼하게 단어들을 읽으며 문장의 의미를 파헤쳐 가는 방식, 즉

정독으로 이행해 갔다. 이런 책 읽기 방식에는 책을 읽기 위한 공간과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했다.

- (라)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어 내는 독서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독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텍스트 편집 기술이 발전하고 편집 형식이 변화했다.

- ① (다) - (가) - (라) - (나)
- ② (다) - (라) - (가) - (나)
- ③ (가) - (다) - (라) - (나)
- ④ (라) - (다) - (가) - (나)

정답 ①

해설: (다)에서 과거의 암송 방식에서 '정독'으로 이행했다고 화제를 던진 후, '이런 책 읽기 방식에는 공간과 자세가 필요했다'고 끝맺습니다. 이어서 (가)에서 정독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과 자세(부동자세, 근대적 공간 훈련)를 명시합니다. (라)에서는 이에 익숙해져 속도가 빨라지며 새로운 독서 방식과 편집 형식이 필요해졌다고 연결되며, 마지막으로 (나)에서 구체적인 편집 형식 변화(사진 삽입, 띄어쓰기 도입 등)를 상술하므로 (다)-(가)-(라)-(나)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3.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기호는 어떤 대상과 일정한 의미가 결합한 것이다. 기호는 대상과 의미, 즉 기표와 기의의 관련성에 따라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상징적 기호로 나뉜다. 도상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시각적 유사성이 있는 기호이고, 지표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과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기호이다. 반면 상징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관습적일 뿐, 시각적 유사성이나 실제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호이다. 예를 들어 신호등 체계는 대표적인 [(가)]의 사례이다. 신호등에서 빨강은 '멈춰라', 초록은 '가라'를 의미하는데, 색채라는 시각적 기표가 그것의 기의와 실제적인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다른 색깔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모티콘 '^_^'은 웃는 얼굴과 닮았기 때문에 '웃음'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모습을 그려 냈기 때문에 [(나)]의 사례이다. 곰이 지나간 흔적인 곰 발자국을 보고 사냥꾼이 곰을 쫓게 되었다면, 그 발자국은 '곰이 지나갔다'는 사실과 인과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의 예이다.

- | (가) | (나) | (다) |
|---------|--------|--------|
| ①도상적 기호 | 상징적 기호 | 지표적 기호 |
| ②도상적 기호 | 지표적 기호 | 상징적 기호 |
| ③상징적 기호 | 도상적 기호 | 지표적 기호 |
| ④상징적 기호 | 지표적 기호 | 도상적 기호 |

정답 ③

해설:(가) 신호등의 빨간색과 '멈춤'의 관계는 인과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상징적 기호입니다.(나) 이모티콘 '^_^'과 지도는 대상의 실제 모습과 시각적 유사성을 지니므로 도상적 기호입니다.(다) 곰 발자국은 곰이 지나갔다는 사실과 원인-결과와 실질적 관계를 맺으므로 지표적 기호입니다.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침>

- 서론은 핵심 개념과 연구 목표를 제시할 것.
- 본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하위 절은 각 장의 제목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구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요>

제목: 귀농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 전략

1장 서론

1절 귀농 청년의 개념

2절 [(가)]

2장 귀농 청년의 창업 지원 방안

1절 스마트팜 창업 및 임대 농장 보조금 지원

2절 [(나)]

3장 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

1절 초기 정착을 위한 입주비 지원

2절 [(다)]

4장 결론

1절 귀농 청년의 원활한 지역 사회 정착

2절 [(라)]

- ① (가): 귀농 청년의 창업·주거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 ② (나): 농산업 창업자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③ (다):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
- ④ (라): 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대

정답 ③

해설: 3장의 대제목은 '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하위 1절은 입주비 지원으로 통일성이 있으나, ③번의 (다)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는 주거 지원이 아닌 창업/농업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론 장 제목과의 통일성을 해쳐 적절하지 않습니다.

5.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은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다. 기체는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액체, 고체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액체이고, 고체는 그 부피가 가장 작다.

그러나 물은 예외이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커지고 ㉡고체인 얼음이 되면 오히려 부피가 작아진다.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데 이때 빙산의 일부가 수면 위로 나와 있다.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의 부피는 고체였을 때 빙산의 부피보다 약간 작다. 수면 위로 나와 있던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이, 낮아진 해수면만큼을 채우기 때문에, 결국 ㉢해수면의 높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그렇다면 오늘날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육지에 있는데, 빙산이 녹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육지의 빙하도 녹게 된다. 육지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빙하가 녹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바닷물 자체도 열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 ① ㉠: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작다
- ② ㉡: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
- ③ ㉢: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 ④ ㉣: 빙하가 녹지 않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정답 ②

해설: 본문 첫 단락에서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물은 예외'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반 물질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작아지지만, 물은 고체(얼음)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은 '부피가 커진다'로 수정해야 논리적으로 매끄럽습니다.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묶어서 부르는 성명은 하나의 고유 명사라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도 성에 붙여 쓴다.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선우주', '남궁수' 같은 성명은 '선-우주', '남-궁수'인지 '선우-주', '남궁-수'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우 주'나 '남궁 수'와 같이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에서는 '선우',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나 관직명 등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써야 한다.

- ①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

- ② '최서현'의 성 '최' 뒤에 호칭어 '군'을 쓸 때 '최 군'으로 쓴다.
 ③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김구'로 써야 한다.
 ④ '허초희'의 호인 '난설헌'을 성 '허' 뒤에 쓸 때 '허난설헌'으로 쓴다.

정답 ①

해설: 지문에서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보영'이라는 이름에서 성이 한 글자인 '황'이고 이름이 '보영'일 때, 복성인 '황보'와 혼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황 보영'으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쓸 수 없다고 한 ①번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입니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고전 서사문학에는,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다. 『홍길동전』, 『김원전』과 같은 소설뿐 아니라, 흔히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로 불리는 많은 설화들이 있다. 여기에서 지하국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위협과 혼란의 세계를 상징한다.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지상은 인간이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이고, 천상은 이상적이고 완성된 세계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지하세계는 어둡고 음험한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로 설정된다. '지하국'에 '대적'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 그 괴물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악, 부정, 부조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국에서의 전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겪어야 할 보편적 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서사에서 중요한 점은,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승리의 원인,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야기 속 해답은 의외로 소박하다. 주인공은 특별한 물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으로 괴물을 제압한다. 예컨대 항상 몸에 지녔던 칼집의 가죽이나, 하찮은 풀로 만든 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는 서사는 영웅이 막강한 괴물을 처치하는 특별한 서사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지하국이 두려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시험의 장소이며, 그 시험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성장에 있다.
 ② 고전 서사에서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 인물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승리한다.

- ③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서 주인공은 괴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④ 전통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 비인간적 존재가 사는 천상 세계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정답 ①

해설: 두 번째 단락에서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데 있다"고 하였고, 결론부에서도 영웅 서사라기보다 삶의 극복에 관한 보편적 서사라고 하였으므로 ①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자신의 방은 자기가 알아서 청소해야 한다.
 ② 나는 감기에 걸려서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었다.
 ③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알아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④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문맥상 '해답은 외부의 도움이나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주체적 역량으로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④번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의 '알기'가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생리적 반응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명명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한다. 그러나 같은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의 움직임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을 신나고 재미있게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 후, 전자는 이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후자는 이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명명한다. 같은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위험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사건 때문에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그 순간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은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가변적 경험이다.

9.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체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 감정 관리의 핵심이다.
- ②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에 의해 좌우되는 능동적인 경험이다.
- ③ 감정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 ④ 감정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감정 반응을 바꿀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글의 핵심은 동일한 신체적/생리적 자극이 오더라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능동적 감정 구성론입니다. 따라서 ②번이 주제를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10. 밑글의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타났다 ② 이름 짓는다
- ③ 깨닫는 ④ 바꿀 수 있는

정답 ③

해설: 본문에서 '신체적 변화를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 기관을 통해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거나 느끼는(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진리를 깨닫는' 뜻에 가까운 '깨닫는'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맥상 다소 어색합니다.

11. (가)~(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마음이 있는 것은 모두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는다.

(나)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 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다.

따라서 _____.

- ①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②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③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④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정답 ①

해설:(가)에 의해: 마음이 있다 → 감정적 소통을 한다.(나)에 의해: 감정적 소통을 한다 →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따라서 '마음이 있다 →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연쇄 법칙이 성립합니다.(다)에서 식물은 모두 마음이 있으므로 →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로봇은 모두 마음이 없으므로 →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이며, ㉠어떤 사건을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이야기이다. 뒷산의 바위, 마을의 연못, 산사의 종 같은 증거물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설은 허구적이지만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서구에서는 전설의 어원을 'legere(읽다)'에서 찾기도 한다. 종교 의식 중에 낭독되는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록 이야기가 점차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서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하였다.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 양식이 전설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전설과 역사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그렇지만 둘 다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에 대한 언어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백을 채운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 공백을 사실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나, ㉢허구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설은 큰 범주에서 역사로서 기능하기도 했다.그러나 전설은 공식적인 역사와 거리를 가진다.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인 역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였다. 과거의 공백에 특정한 시각과 욕망을 투영하여,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져 있던 일을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공식적 역사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신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며 오늘날까지 전설의 전승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설은 역사 기술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 공식적인 역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② 역사적 이야기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전설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출된다.
- ③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한다.
- ④ 증거물이 사라진 후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정답 ③

해설: 두 번째 단락에서 역사는 과거의 공백을 '사실적'으로 구성하고,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구성하는 방식(사실 vs 허구)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한다는 ③번 설명이 정확합니다.

13. 밑글의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본문은 '공식적인 역사'와 대조되는 '전설(민중의 역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어떤 사건을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이야기
의미: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공백을 허구적(이야기적) 방식으로 채워 넣은 '전설'을 의미합니다.
- ㉡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
의미: 특정 시공간과 주인공이 구체화되어 '전설'로 변모하기 이전 단계의 '신성한 이야기(신화적/종교적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질적 전환을 거쳐 전설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 허구적으로 채우는 이야기
의미: 과거의 공백을 사실적으로 채우는 '공식 역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설'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 ㉣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
의미: 공식 역사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진 일들을 민중(전설 향유층)의 시각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즉 '전설'을 의미합니다.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광야」는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로 시작된다. 이 시의 해석과 관련해서 1연 3행의 시구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들렸으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대체로 이를 수사적 의문 '들렸겠는가?'로 파악하여 닭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해 왔다. 그런데 "들렸으랴"가 '들렸으리라'의 축약형이며, 이 시구를 '들렸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닭이 울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과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해 온 입장이 갈렸다. 입장에 따라 "어데"의 의미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전자의 입장(긍정)에서는 '어디선가'라는 뜻이지만, 후자의 입장(부정)에서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에서 쓰인 '어디'와 같이 되물어 강조할 때 쓰는 감탄사로 해석된다. "닭"에 대해서도 두 입장은 해석을 달리한다. 닭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논자들에게 닭은 소리를 내어 우는 동물을 의미할 뿐이다. 이들에게 시의 첫 연은 아무 소리 없는 정적 그 대로의 광야를 나타낸다. 하늘이 처음 열린 날 어찌 닭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겠느냐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실제 동물로서의 닭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로서의 닭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의 첫 연은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 어떤 지고한 소리가 울리고 있는 광야를 그려 낸다.

- ① "어데"를 '어디선가'로 해석하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 ② 1연 3행을 수사적 의문으로 보는 입장은 개벽의 시간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 ③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으로 보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를 개벽을 알리는 소리로 파악한다.
- ④ 닭의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개벽의 순간에 광야에 울리는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로 파악한다.

정답 ④

해설: 마지막 단락을 보면 닭의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입장이 닭을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이자 '지고한 소리가 울리는 광야'로 파악합니다. 반면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단순한 동물로만 보며 정적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두 입장의

설명을 반대로 뒤집은 ④번이 옳지 않습니다.

1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찾아가는 민원 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방문이 확정된 사업장은 어디죠?
을: 방문 후보인 사업장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병: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다문화센터에 방문한다면, 전통시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정: 그리고 행사 계획상 _____.
갑: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전통시장은 반드시 방문하겠네요.

- ① 전통시장에 방문한다면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 ②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한다면 다문화센터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 ③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은 방문해야 합니다
- ④ 다문화센터는 방문하면서 아동돌봄센터는 방문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답 ③

해설: 을의 말에 의해 '아동돌봄센터 X', '주민도서관 X'가 확정입니다. 병의 조건문은 '아동 X 이고 다문화 O 이면 → 전통 O'입니다. 이미 아동 X는 참이므로, '다문화 O'이기만 하면 반드시 '전통 O'이 됩니다. 갑의 최종 결론이 "전통시장은 반드시 방문(참)"이 되려면, 병의 전건인 '다문화 O'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이 "다문화센터는 반드시 방문한다" 혹은 "다문화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주민도서관이 거짓이므로 결국 다문화)은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주어야 삼단논법에 의해 '전통시장 방문'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16. 다음 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흔히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당신이 용을 보았고 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환각을 보고 상상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용의 존재 여부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며, 용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도 없기 때문에,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A]이다. 우리 감각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거나, 우리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거나, 입증할 논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따르자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믿는 것조차 합리적일 수 없다. 또한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다고 믿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이를 입증할 어떠한 논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의 합리성을 위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A]은 옳지 않다. 만약 그 입장이 옳다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 참이라면,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 ② ㉠가 거짓이라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 ③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 약화된다.
- ④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은 강화된다.

정답 ④1. 문제의 핵심 구조 다시 파악하기

입장 [A]의 기준: 믿음이 합리적이라면 (1) 감각, (2) 의식, (3) 입증할 논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문의 팩트 (용과 도깨비의 예시): 용이나 도깨비는 (1) 감각이나 (2) 의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3) 입증할 논증이 없다면 입장 [A]에 의해 '비합리적'인 믿음이 됩니다.

밀줄 ㉠: "입장 [A]는 옳지 않다." (글쓴이의 주장)

2.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정답)'인 이유

- ④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은 강화된다.

입장 [A]의 시각: 만약 도깨비를 입증할 논증(조건 3)이 존재한다면, 입장 [A]의 기준에 따라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 됩니다.

즉, "도깨비를 입증할 논증이 있어서 도깨비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진술은 입장 [A]의 기준과 완벽하게 부합(일치)하는 사례입니다.

입장 [A]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이는 입장 [A]를 옹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입장 [A]를 비판하는 밀줄 ㉠("입장 [A]는 옳지 않다")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은 강화된다"라고 설명한 4번 선지는 잘못된 진술(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며, 이 문제의 올바른 정답이 됩니다.

3. 그렇다면 2번은 왜 '적절한 진술'일까? (제가 헷갈렸던 부분 고치기)

- ② ㉠이 거짓이라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이 거짓이다'의 의미: ㉠("입장 [A]는 옳지 않다")가 거짓이므로, 반대로 "입장 [A]는 옳다"가 됩니다.

입장 [A]가 옳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문의 두 번째 문단 내용을 보면, "만약 그 입장([A])이 옳다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라고 글쓴이가 직접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 적힌 인과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술이므로 2번은 적절한 선지가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입장 [A]의 조건(논증이 있으면 합리적이다)을 만족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예시는 입장 [A]를 지지하는 내용이므로, 입장 [A]가 틀렸다고 말하는 ㉠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17.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

- 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 ②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된다.
- ③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 ④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조건 2: 소비 위축 → 물가 둔화.조건 3: ~물가 둔화 (물가 둔화 안 됨).대우 명제에 의해: ~소비 위축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음).조건 1: (금리 인상 ∧ 통화 동결) → (소비 위축 ∧ 투자 감소).위의 결과인 '소비 위축'이 거짓이므로 결론부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대우에 의해 앞의 조건인 (금리 인상 ∧ 통화 동결)도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모두 17자인데 초성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음운 이론에서는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기본자 'ㄱ, ㄴ, ㄷ, ㄱ, ㅅ, ㅇ'을 만들었다.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즉 상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음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순음 'ㄷ'은 '입 모양'을, 치음 'ㄱ'은 '이 모양'을,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각각 본떴다. 그 다음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가획의 원리는 각각의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그 소리가 더 세어진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ㄴ → ㄷ → ㄸ', 'ㄷ → ㅌ → ㄲ', 'ㅇ → ㅎ → ㆁ' 등이 있다. 이때 획이 더해져 만들어진 초성자는 기본자와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그런데 가획의 원리로 모든 초성자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ㄹ'은 'ㄴ'에, 'ㄷ'은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ㅇ(엠티음)'은 아음이지만 기본자 'ㅇ'과 글자 모양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 이들 'ㄹ, ㄷ, ㅇ(엠티음)'을 이체자라고 한다.

- ① 'ㅇ(엠티음)'과 'ㆁ'은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 ② 'ㄷ'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 ③ 'ㄷ'보다 'ㄸ'이 소리가 세고, 'ㄷ'보다 'ㅌ'이 소리가 약하다.
- ④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 기본자를 정하였다.

정답 ④

해설: 첫 단락에서 "당시 음운 이론에서는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 나누어져 있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분류 체계를 세종대왕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음운 이론 체계를 가져와 적용한 것이므로 ④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9.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알레르기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신체 외부의 물질을 적으로 오인하여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흔히 개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위생 습관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 면역 체계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렵 채집 시절부터 공생해 온 '오랜 친구들'이라 불리는 유익한 미생물의 도움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컴퓨터 학습 시스템과 유사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논발과 동산이 있는 자연환경인 전원에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 온 유익한 공생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면역 체계에 일종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면역 체계는 햇빛이나 꽃가루 같은 무해한 물질에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발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나 목욕 같은 위생 습관은 가정 내 미생물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즉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의 지나친 위생 습관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과 격리된 도시 생활은 이러한 노출을 막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 ① 자연과 격리된 도시에서 개인 위생용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 ② 동일한 전원에서 자란 두 집단의 아이들을 비교할 때, 거주지의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 ③ 주거지의 위생 상태가 유사한 아이들을 비교할 때, 전원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
- ④ 어린 시절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된 후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정답 ③

해설: 본문의 핵심 논지는 '알레르기는 위생 습관 때문이 아니라, 자연환경(전원)에 존재하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학습 데이터)에 노출되지 못해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생 상태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전원에서 오래 생활하여 미생물 노출이 많았던 아이들이 알레르기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적 수치(③번)가 논지를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20.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한 줄 서기보다는 두 줄 서기

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혼잡을 줄일 수도 있어. 개인의 이동 속도보다 전체적인 효율을 우선해야 해.

승현: 물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지. 그런데 두 줄로 서면 급한 사람은 빨리 이동하기 어렵잖아. 이동이 급한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가 효율보다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범주: 에스컬레이터 줄 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두 사람이 고려하는 기준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어. 그런데 혼잡한 시간대에는 두 줄로 서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시라: 안전도 고려할 중요한 기준이지. 한 줄 서기를 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두 줄 서기를 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승현: 그리고 보니 에스컬레이터에 한쪽으로만 설 경우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에 부담을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니만큼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겠네.

범주: 안전이 중요하니까 혼잡할 때는 두 줄 서기를 해야겠지. 하지만 혼잡하지 않을 때에는 이동이 급한 사람을 배려해서 한 줄 서기를 해야지.

- 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시라와 승현은 동의한다.
- ② 혼잡 정도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범주는 동의한다.
- ③ 시라와 승현은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 ④ 안전 면에서는 두 줄 서기가 낫다는 점에 대해 시라, 승현, 범주는 모두 동의한다.

정답 ③

해설: 대화를 보면 시라와 승현은 안전과 효율 등을 근거로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화하며, 상황에 따라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혼잡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을 한 것은 범주 혼자입니다. 시라와 승현이 상황에 따라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으므로 ③번은 잘못된 분석입니다.